



연등 제작 공장을 찾아서  
연등제작 시준 계약



## 손끝에서 연꽃이 피네!

연등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원단을 연잎크기로 재단하는 과정.



등통에 재단과 형합과정을 거친 연잎을 붙이는 조립과정.



검품 과정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사찰의 대중방은 연잎을 뜯어내고 부처님오신날 내걸 연등을 만드는 손길로 분주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가릴 것 없이 연잎을 마는 풍경은 소담하게 그려낸 한 폭의 그림 같다. 알뜰달록 물들은 손끝에서 느껴지던 신심...

하지만 용기종기 물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던 그 모습은 이젠 가슴 속 깊이 차곡차곡 담겨야 할 추억이 되고 있다. 질의 규모가 커지거나 신도수가 늘어 불자들이 손수 만들던 연등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보다 전문화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서 만든 연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양력 5월5일)을 100여일 앞둔 1월 17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찬덕연등(대표 김기찬)의 작업실에서는 사찰에 납품할 연등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몇 안되는 연등제작 회사이지만 이 또한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반자동화 공장이다. 이들에게는 1월부터 4월 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다.

10여 평 규모의 허름한 벽돌공장, 그 속에서 선홍색과 노란색 등 다섯 가지 색을 띤 연잎을 차례로 등통에 붙이는 보살들의 손

끝이 신기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도 한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연등은 60 여개에 불과하다.

분업 형태로 이뤄지는 연등제작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가장 먼저 연잎으로 사용되는 원단을 재단하고, 이를 연잎모양으로 주름을 주는 형합 과정을 거친다. 형합기계는 두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3년 만에 개발된 특허 제품. 형합기계에

서 만들어진 연잎을 외부에서 주문 제작된

### 바쁜 세대 반영 사찰연등 대부분 공장서 납품 신제품 연구 계속...주문따라 특화등 생산도

플라스틱 등통에 붙이는 조립·포장 과정을 거쳐 비로소 연등으로 탄생한다.

플라스틱 등통은 등상에 한지를 발라야 하는 전통등의 제작과정을 간소한 사출로 간소화시킨 대표적인 산물이다.

불을 밝힐 수 있는 소켓을 제작하는 과정과 수백 개의 연등을 한꺼번에 매다는 프레임 제작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섯 가지 일손이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은 비교적 조촐하다. 원단 재단 공간과 형합 공간, 조립공간으로 구분돼 있지만, 여전히 가내수공업의 틀을 벗지

못했다. 연등을 만드는 여타의 공장도 찬덕 연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점이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전체 직원이 둘러앉아 직접 밥을 지어 점심을 먹는 모습에서는 가족에서 느낄 수 있는 푸근함이 전해진다.

14년 전 연등 개발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아내의 고생길이 열렸다는 김기찬(46·송광) 찬덕연등 대표. 하루 종일 새로운 연등을 개발하기 위해 온 신경을 쏟는 그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연등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이다. 사

원초파일이 되면 집집마다 연등을 내걸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 김대표의 꿈이다. 그래서 그는 연등에 '미쳤다'.

찬덕연등(031-729-6288)과 같은 공장에서 제작된 연등이 처음 선보인 때는 그리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 못했다. 기껏해야 30여년 전의 일이다. 이 때만 해도 손으로 만든 연등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비닐등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팔모등, 육각등, 연꽃등, 유등 등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한 제2세대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남/글=박병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 중국산 비닐등 한국 절 장악

#### 인건비가 원인...시각적 효과 떨어져

길거리나 야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등은 연등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은 품목이다. 저렴한 가격과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비닐등이 '정성'을 중요시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정서를 이긴 셈이다. 편리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은 절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비닐등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다. 이미 오래전 국내에서는 생산이 중단돼 연등 1세대 국산시대를 마감했다. 가격 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연등은 중국에서 수입된 연등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에 있다. 화공약품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아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 국내 인건비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연등의 원가와 유통비를 합한 금액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공인장 찬덕연등 이사는 "살가운 맛이 떨어지고 시각적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비닐등을 표적으로 거리에서 내거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할 문화"라며 "크리스마스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연등을 걸어 불교문화가 대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 ■ 전통등 관심고조...모형·종류 다양화

#### 전통등연구회 발족 후 저변확대

우리나라 최초의 연등행사는 신라 진흥왕 때인 것으로 전한다. 그 뒤 연등축제가 현재처럼 시월초파일로 정착된 것은 고려 중엽 무렵으로 <고려사>에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관 주도의 연등행사는 자취를 감추고 민간에 의한 연등축제가 행해지다가 일제 강점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등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전통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등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모양의 전통등들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97년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인 지현 스님(병화 청량사 주지)이 초파일 연등축제를 한국 전통의 연등축제로 복원해보자며 동국대 미술대 출신 젊은 작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한 것을 계기로 전통등연구회가 발족했다.

이에 힘입어 98년 수박등·종(鐘)등·목어등·코끼리등 등 20여 점의 전통등을 선보였던 전통등연구회는 이후 시연회와 공예전을 수차례 개최했으며, '전통등 전승공방'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등 제작 강좌를 진행하는 등 우리 등 문화

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02723-0306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역시 매년 연초 전통등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봉축장연등 제작강좌를 열고 있다. 022011-1747

이은비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 원침의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가격 245,000원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아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아들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백색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수의 노폐물 배출, 허벅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 허약한 氣血복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 이렛배가 낫으신 분
- ※ 허벅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 권장
- ※ 의자에 앉아 정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몸을 편강하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백색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열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아혈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칙외선이 백색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타타극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